

4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

◆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을 파악해 봅시다.



내가 아는 옛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써 봅시다.



냄새 값, 소리 값

방귀쟁이 며느리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냄새 값, 소리 값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살았어.

이 영감이 얼마나 욕심쟁이였는고 하니, 옆집 닭도 담 넘어 들어오면 제 닭, 남의 물건도 제 손에 있으면 제 물건, 집에 들어온 것은 죄다 자기 것이었지. 부자 영감은 남들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숨을 크게 쉬는 것도 싫어했어. 제 집 앞 공기가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돼서 말이야.

배가 고프른 마을 사람들은 부자 영감네 집에서 솔솔 풍겨 나오는 음식 냄새에 코를 벌름거렸어. 사람들은 담벼락에 달라붙어 꿀각꿀각 침을 삼켰어. 그 모습을 본 부자 영감은 눈살을 잔뜩 찌푸렸어.

“감히 내 집에서 나는 냄새를 공짜로 맡고 있네. 그럴 순 없지.”

부자 영감은 심술궂게 불을 실룩이더니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

“네 이놈들, 냄새를 맡았으면 값을 치르고 가야지.”

“냄새 맡은 값이라니요?”

“이 생선은 내가 직접 장에 나가 고르고 또 골라서 열 냥이나 주고 사 온 거다. 그러니 냄새 값으로 다섯 냥을 내놓아라!”

“당장 쌀 한 톨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냄새 값을 마련한단 말인가?”

“그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저 고약한 영감이 진짜 우리를 원님에게 고발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둘러앉아 여러 방법을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어. 그때 마침 한 노인의 아들이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지. 노인은 아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어.

며칠 뒤, 노인의 아들이 부자 영감을 찾아갔어. 부자 영감은 쓴살같이 문을 열고 나왔어.

“그래, 냄새 값을 가져왔다고?”

그러자 아들은 돈이 든 주머니를 높이 들더니 짹짹 소리를 내며 흔드는 거야.

“예끼! 돈을 가져왔으면 냉큼 내놓을 일이지.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부자 영감은 화가 나서 노인과 아들을 원님에게 데려갔어.

“저는 냄새 값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자 영감이 억울한 표정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어.

“원님, 영감님은 마을 사람들이 생선 냄새를 맡았다고 냄새 값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전 소리도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감님께 동전 소리를 들려 드렸습니다. 냄새 값을 소리 값으로 낸 것이지요.” 아들의 말에 원님은 무릎을 쳤어.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영감은 들어라. 네가 괜한 일로 나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그 죄값으로 쌀 스무 가마를 내놓아라.”





1 「냄새 값, 소리 값」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부자 영감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숨 쉬는 것을 싫어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부자 영감이 사람들에게 달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3 노인의 아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의 걱정을 해결했나요?

2 부자 영감과 아들의 성격은 어떤지 써 봅시다.

부자 영감의 성격

아들의 성격

3 ‘쏟살같이’를 넣어 짧은 글을 써 봅시다.



쏟살같다.
쏘아 놓은 화살처럼 매우 빠르다.

4 「냄새 값, 소리 값」에 담긴 생각을 써 봅시다.

5 다음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제목을 붙여 봅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사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은 사또가 무슨 엉뚱한 일을 시킬지 몰라 늘 걱정을 하였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겨울날, 사또는 갑자기 산딸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산딸기를 따 오너라. 지금 당장 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사또의 명령을 들은 이방은 걱정하다가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여쭙어보았습니다. 이방은 사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딸기를 따 오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들은 한참 동안 생각한 뒤에 이방의 손을 꼭 잡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방의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앓아누워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방이 아프다고? 음, 꾀병을 부리는구나. 네 아비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이방의 아들은 겁먹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산딸기를 따러 가셨다가 독사한테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를 따 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녀석!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이 꾸짖었습니다.

“사또님 말씀이 옳습니다. 겨울에는 독사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산딸기도 없습니다.”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 하였습니다.

- 이방: 사또를 도와 고을의 살림살이를 맡은 관리



배움 다지기

- 옛이야기에 담긴 생각을 파악했나요?

